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형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71
----------	-----

발의연월일 : 2024. 6. 18.

발 의 자 : 김준형 · 권철승 · 차규근
이재강 · 한정애 · 박은정
신장식 · 이해민 · 서왕진
강경숙 · 김선민 · 고민정
정춘생 · 박지원 · 김재원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윤석열 대통령은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와 출국금지 조치까지 받고 있던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하여 부임시킨 바 있음.

이는 채상병 사망 사건과 수사 외압 혐의를 은폐하기 위해 특임공관장 임명권을 남용한 사례로, 국내적으로는 중요한 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을 지체시켰고 대외적으로는 심각한 외교적 결례를 초래하였음.

이를 제도적으로 통제하지 않을 경우 국정과 관련한 중대한 사건 당사자를 특임공관장에 임명하여 수사를 기피하는 경우가 다시 발생할 수 있음.

이에 ‘공무원으로서의 직무상 행위로 기소 및 수사 중에 있는 자’는

특임공관장에 임명할 수 없도록 하여 특임공관장 임명권 남용을 방지하고, ‘헌법, 국가보안법, 중대재해처벌법, 공직자윤리법에 위배되는 행위로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를 임명할 수 없도록 하여 국가적 중대한 사항의 범죄에 연루된 자의 임명을 방지하는 것임(안 제4조제5항 신설).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외무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특임공관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명될 수 없다.

1. 공무원으로서의 직무상 행위로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 임명 시 조사나 수사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자
2. 「대한민국헌법」, 「국가보안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직자윤리법」에 위배되는 행위로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 임명 시 조사나 수사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자
3. 「출입국관리법」 제4조에 따라 출국이 금지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특임공관장) ① ~ ④ (생략) <u><신 설></u>	제4조(특임공관장) ① ~ ④ (현행과 같음) <u>⑤ 특임공관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명될 수 없다.</u> <u>1. 공무원으로서의 직무상 행위로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 임명 시 조사나 수사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자</u> <u>2. 「대한민국헌법」, 「국가보안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직자윤리법」에 위배되는 행위로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 임명 시 조사나 수사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자</u> <u>3. 「출입국관리법」 제4조에 따라 출국이 금지된 자</u>